



Analyst

김도하

dohakim@sk.com  
02-3773-8876

## 은행

### 11 월 연체율: 기업대출발(發) 연체율 안정화

국내은행의 11 월 연체율은 0.49% (-20bp YoY)로 전 차주의 하락이 나타남. 대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연체채권은 오히려 감소한 것이 연체율 하락의 원인으로 판단. '17년 11 월 연체채권은 7.4 조원으로 19.6% YoY 감소했으며, 차주별로는 가계 연체의 안정화와 기업 연체의 감소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 시장금리 상승이 시작된 4Q16 이후에도 신규 연체규모는 1 조원 초반대로 '15년 및 '16년 상반기의 1.7 조원~2.1 조원 대비 낮은 수준. 당분간 은행 연체에 대해 우려할 만한 요소는 제한적일 전망

### 국내은행 11 월 연체율 0.49% (-20bp YoY)로 하락

국내은행의 11 월 원화대출 연체율 (1 개월 이상 연체 기준)은 0.49%로 전년동월대비 20bp 하락함. 기업대출 연체율은 0.67% (-34bp YoY)로 대기업 및 중소기업이 각각 0.43% (-115bp YoY), 0.74% (-11bp YoY), 가계대출 연체율은 0.28% (-2bp YoY)로 주택담보대출 및 가계일반이 각각 0.19% (-2bp YoY), 0.47% (-7bp YoY)를 기록해 전 차주의 연체율 하락이 나타남

### 가계 연체채권은 안정화, 기업 연체채권은 지속적으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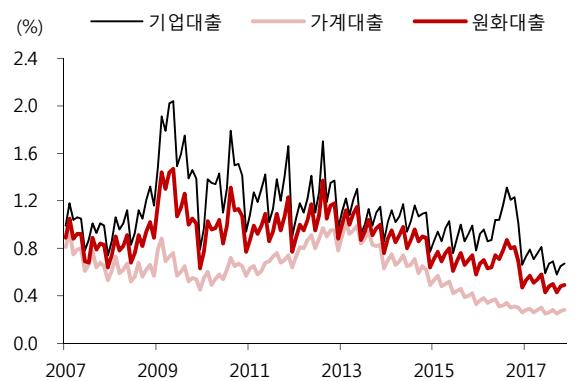
총 연체율은 YoY 기준 13 개월 연속 낮아지고 있어 추세적인 하락을 지속 중임. 대출 잔액(분모)은 증가하는 가운데 연체채권(분자)은 오히려 감소한 것이 연체율 하락의 원인인 것으로 판단. 국내은행의 11 월 연체채권 규모는 7.4 조원 (-19.6% YoY)으로, 기업 및 가계 연체가 각각 5.3 조원 (-31.0% YoY), 2.1 조원 (+1.0% YoY)으로 추정됨. 가계의 연체채권은 4Q16 이후 2.0 조원 내외를 유지하고 있어 가계대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연체 규모를 나타내고 있으며, 기업의 연체채권은 특정 업종의 리스크가 높아졌던 2016년 하반기를 제외하면 수년간 이어진 감소 추세를 여전히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우려할 만한 요소는 당분간 제한적

기업대출 연체율이 2009년 이후, 가계대출 연체율이 2013년 이후로 지속적인 하향 안정화를 나타내는 가운데, 당분간은 연체율 악화에 대해 우려할 만한 요소는 제한적이라고 판단. 연체채권 규모 감소에는 대출금리 하락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나, 시장금리가 상승세를 나타낸 2016년 4분기 이후에도 신규 연체규모는 1조 원 초반대를 유지하면서 2015년 및 2016년 상반기 평균인 1.7 조원~2.1 조원 대비 낮은 수준을 기록함 (예금은행 평균 대출금리 2016년 9월 말 3.34% → 2017년 11월 말 3.44%). 시장금리의 우상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절대적으로는 낮은 금리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금리의 급격한 상승 및 이로 인한 이자비용 급증이 수반되지 않는 한 당분간 은행 연체율 상승을 야기할 우려 요소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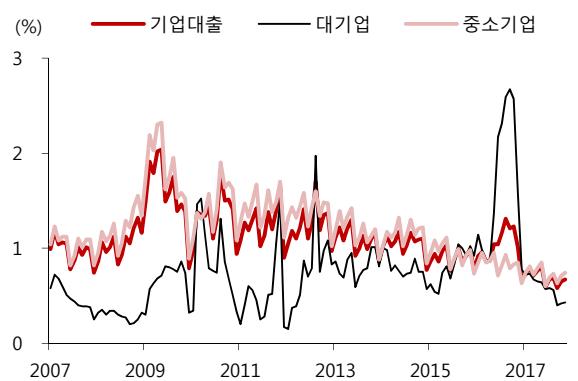
## 국내은행 연체율 관련 데이터

## 국내은행 차주별 연체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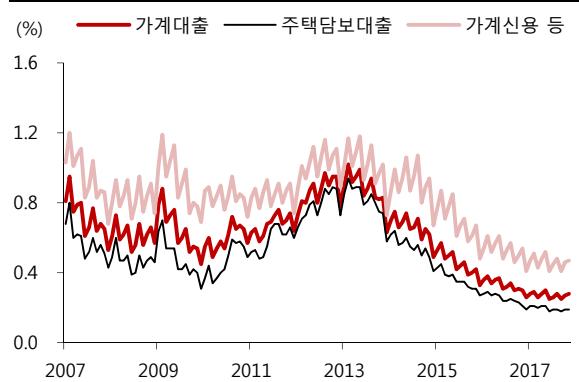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SK 증권

## 국내은행 기업대출 차주별 연체율 추이



자료: 금융감독원 SK 증권

## 국내은행 가계대출 차주별 연체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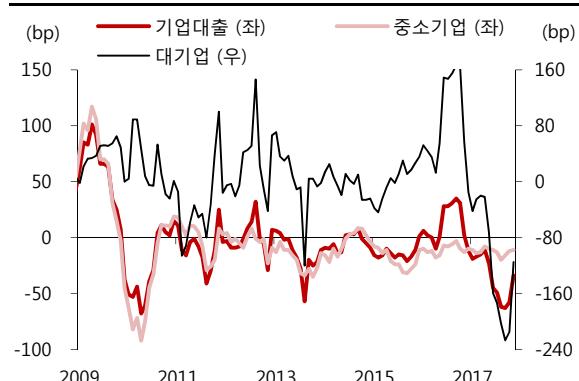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SK 증권

## 국내은행 차주별 연체율의 YoY 변동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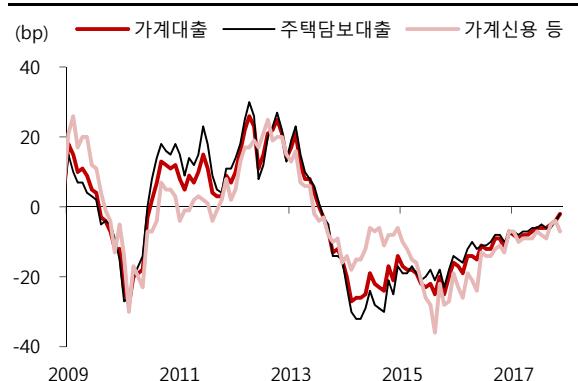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SK 증권

## 국내은행 기업대출 차주별 연체율의 YoY 변동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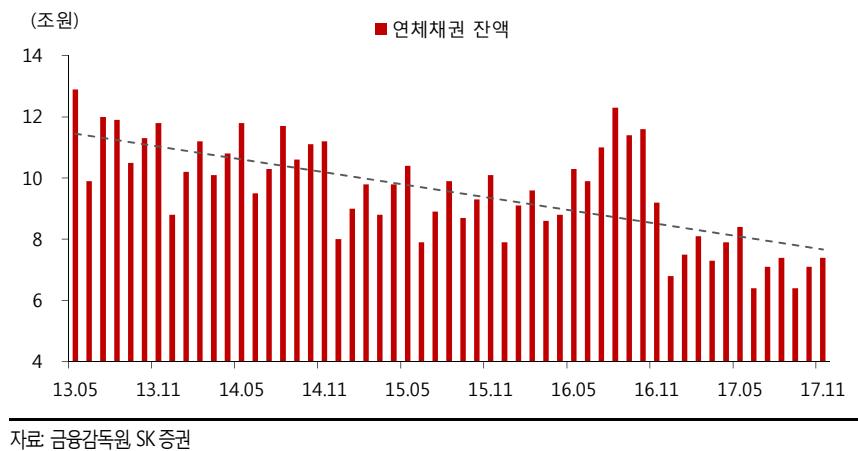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SK 증권

## 국내은행 가계대출 차주별 연체율의 YoY 변동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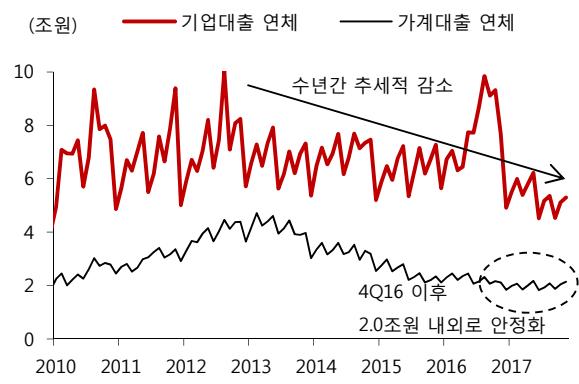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SK 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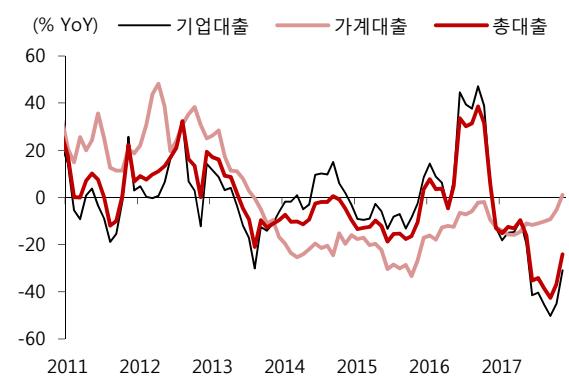
## 국내은행 연체채권 잔액 규모: 대출 성장에도 불구하고 연체 규모는 감소 추세



## 차주별 연체채권 규모 (추정): 가계 2조원 내외 유지, 기업 감소추세



## 차주별 연체채권 규모의 YoY 변동률



**Compliance Notice**

- 작성자(김도하)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팀당사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해당기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 종목별 투자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판단 4 단계 (6 개월 기준) 15%이상 → 매수 / -15%~15% → 중립 / -15%미만 → 매도

**SK 증권 유니버스 투자등급 비율 (2018년 1월 5일 기준)**

|    |        |    |        |    |    |
|----|--------|----|--------|----|----|
| 매수 | 89.26% | 중립 | 10.74% | 매도 | 0% |
|----|--------|----|--------|----|----|